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21~5/27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꽃비 오니 봄날이다	동은	조계종출판사
2	서른즈음 꼭 읽어야 할 금강경	정운	민족사
3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석지현/윤청화/일지	민족사
4	이뭐꼬	퇴옹성철	장경각
5	초역 부처의 말	코이케 류노스케	포레스트북스
6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원영	불광출판사
7	고엔카의 위빳사나 10일코스	윌리엄 하트/담마 코리	김영사
8	우리말 법화경	혜조	운주사
9	정원예찬	현진	담앤북스
10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	자현	담앤북스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거룩한 불편:녹색전환사회를 위한 지혜	유정길	모과나무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부처님의 생애(+불교입문+불교개설/종단본3권세트)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4	진짜 나를 찾아라(맑고향기롭게30주년기념) 미공개 강연록*양장	법정	샘터사
5	좋은 말씀:법정스님 법문집	법정/맑고향기롭게	시공사
6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법정의 산중편지	법정/박성직 엮음	책읽는섬
7	나를 더 나답게:삶의 주인이 되는 마음습관	원빈	붓다스쿨
8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람림)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9	동화로 읽는 부처님 마음	오해균/김승연 그림	운주사
10	백유경(큰글씨 한글경전)	경전연구모임 편	불교시대사

불교의례 '낙화법' 학술적 조명



낙화법과 수구즉득다라니

태경 스님 외 지음
경인문화사
2만8000원

세종시 무형유산 '낙화법' 연구 성과
논문 5편–염송의궤 절차 별책 수록
한글 표기법 전환하고 표준안 확정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유산 '세종 불교 낙화법'에 대한 연구 성과를 모은 책이 출간됐다. 사진은 세종 영평사가 올해 2월 개최한 제10회 낙화법 행사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낙화법과 수구즉득다라니〉는 2024년 2월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유산에 지정된 '세종 불교 낙화법'에 대한 연구 성과를 모은 책이다. 세종시불교낙화법보존회(이사장 환성 스님, 영평사 주지)가 2024년 11월 개최한 제1차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해 담고, 별책으로 올해 5월 5일 제정한 '세종 불교 낙화법' 표준안을 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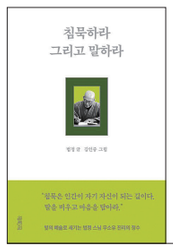
낙화(落火)란 한지로 만든 봉지에 숯을 넣어 높이 매달고, 불을 붙여 떨어지는 불빛을 보는 것을 말한다. 민간에서 행하는 낙화놀이와 달리 낙화법은 사찰에서 낙화를 태우며 재앙 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불교 의례로 조선시대 이전부터 행해져 왔다.

최근 경남 함안, 전북 무주 등 일부 지역에서 축제 형태로 낙화놀이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찰에서의 낙화법은 세종 영평사에서 전해져 오는 것이 유일하다. 영평사는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오대진언집〉에 그 절차가 기록된 것을 근거로 낙화법을 설행해 왔으며, 세미나 등을 통해 낙화법의 역사적·학술적 근거를 밝히고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이끌어 왔다.

세종시불교낙화법보존회는 "1차 학술세미나의 가장 큰 성과는 낙화법을 설행할 때 염송하는 '수구즉득다라니'의 정본을 정한 것"이라며 "영평사 소장본 〈오대진언집〉에 15세기 훈민정음 표기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수구즉득다라니'를 현대 한글 표기법으로 전환하고 이를 표준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낙화법 참가 대중들이 '수구즉득다라니'의 뜻을 바르게 알고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책에는 △불교의례 낙화법 용어의 통일 연구(태경 스님, 조계종 의제실무위원) △오대진언집 판본에 관한 연구(정왕근,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수구즉득다라니에 나타난 판테온과 신위 연구(강향숙,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수구즉득다라니 한글 표기의 현대화 방안(이준환,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오대진언집〉 '영험약초'의 서사 재편과 수구다라니 신앙(오대혁, 동국대) 논문과 학술세미나 경과 및 회의록, 보도자료 등이 실려 있다.

말의 본질을 성찰하다



침묵하라 그리고 말하라

법정 스님 글 / 김인중 그림
열림원 / 1만9000원

가려 엮은 법정 스님 사유의 글
'빛의 화가' 김인중 신부 작품 수록
"침묵은 인간이 자기 자신 되는 길"

시대를 초월해 '무소유'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정 스님의 글에 '빛의 화가' 김인중 신부의 미공개 작품 30점을 더한 〈침묵하라 그리고 말하라〉가 출간됐다.

역설적인 이 책의 제목은 '말'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말 이전의 고요함과 존재의 본질을 성찰하게 한다. 침묵을 통해 삶을 돌아보고, 단순한 삶을 실천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통해 인간 본연의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법정 스님의 당부이기도 하다.

"오늘날 인간의 말이 소음으로 전락한 것은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소음과 다름없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말을 안 해서 후회되는 일보다도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법정 스님의 깊은 사유와 그 사유를 닮은 김인중 신부의 그림은 우리에게 '말없이 정진하는 태도'로 정신적인 가치와 참된 행복을 찾아볼 것을 권한다. 여수령 기자

새로 나온 책

새롭게 옮기고 풀이한 〈선가귀감〉



수행자의 거울 —선가귀감

청허 휴정 지음
무명 역해
뜻밖
1만6000원

"경을 보되 만약 자기를 향해 공부를 지어가지 않으면 비록 만 권의 대장경을 전부 본다 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이다."

선 수행의 교과서로 여겨지는 〈선가귀감〉을 새롭게 번역했다. 역해를 맡은 이는 고전 번역 전문가로, 현재는 어두움에 가려져 있지만 수행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 것이란 뜻에서 '무명(無明)'이란 필명을 쓰고 있다. 김상인 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추천사에서 "과거에 무심히 읽어 보았던 〈선가귀감〉을 새로이 읽으면서 번역자가 고민하고 시도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며 "선이나 명상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기경전으로 읽는 붓다의 생애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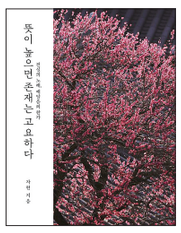
마쓰나미 고도 지음
최성호 옮김
바다출판사
1만7800원

〈아함경〉, 〈법구경〉 등 초기경전에서 고른 108편의 경구를 씨줄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날줄로 엮은 책이다. 2500여 년 전, 청년 싯다르타가 어떤 상황에서 출가를 결심하고 깨달음을 얻었으며 가르침을 전했는지를 상세히 소개한다. 문태준 시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자상하고 구체적인데, 이 책에는 그 내용이 일화와 함께 잘 드러나 있다"고 평했다.

저자는 일본 스님이자 불교학자로, 하와이와 미국 등에서 20여 년간 불교 연구와 포교에 매진했다.

일상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백팔번뇌 이야기〉, 〈불교 명언 365일〉 등을 펴냈다.

다시 펴낸 자현 스님의 감성 시집



뜻이 높으면 존재는 고요하다

자현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1만8000원

불교계 대표 학자로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불교를 대중에 알리고 있는 자현 스님(한국불교학회장)이 2000년 출간한 시집을 현재의 시선으로 다듬고 감각적인 사진을 덧붙여 다시 펴냈다. 지난해 마음을 울리는 문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태양에는 밤이 깃들지 않는다〉에 이은 두 번째 감성 법문집이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언가 희생의 대가여서는 안 된다. 온전한 행복이란, 그 자체로 만족스럽고 흐뭇함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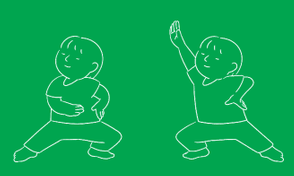
바쁘고 치열한 삶에 익숙한 우리에게 "뜻이 높으면 존재는 고요하고, 생각이 순일하면 마음은 평화로운 법"이라고 말하는 스님은 "부디 질러감을 탐하지 말고 대도행(大道行)을 떨치라"고 당부한다.

우리는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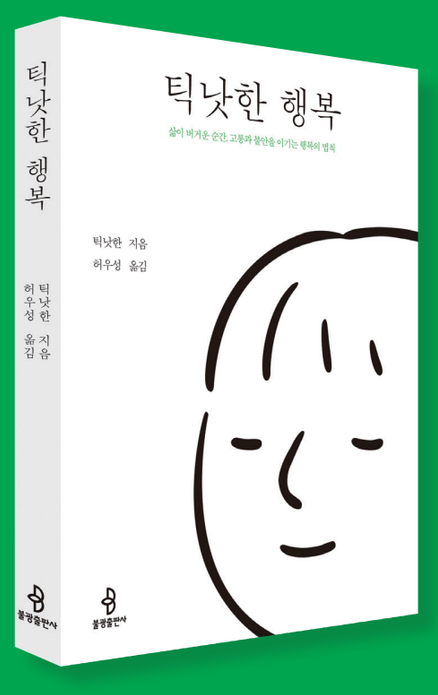
틱낫한 행복

삶이 버거운 순간, 고통과 불안을 이기는 행복의 법칙

틱낫한 지음 | 허우성 옮김 | 248쪽 | 18,000원



틱낫한 스님이 친절하게 이끌어주는
'지금 당장, 바로 여기'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행복의 법칙!



"우리는 행복은 미래에나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_본문 중에서

★★★★★ 아마존 리뷰 ★★★★★

"저는 25년째 명상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틱낫한 스님은 마음챙김 수행을 누구나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소개해요. 이 책은 스님의 모든 수행법을 담고 있고, 명상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가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틱낫한 스님의 글은 단순하게 쓰였지만, 삶과 의미와 마음챙김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나는 앞으로도 몇 번이고 이 책을 다시 읽고 또 읽게 될 것 같아요."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